

‘해외출장 전국 1위’ 제주도의회, 뒤늦게 제도 개선

출장 계획 사전공개·부당경비 환수

정부 권고안 1년 넘게 미루다 공무원출장 조례 개정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 의회 누리집 10일 이상 공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의원 1인당 해외출장 횟수가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아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 권고안을 1년 넘게 미뤄오다 뒤늦게 해외출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4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의원 공무원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

의 불투명한 해외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의회 공무원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사무처는 해당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에 제안했지만 당시 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다른 시도의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미뤄 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제주를 비롯한 일부 시도 의회가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자 정부는 그

해 11월 말 적발 시 재정상 불이익을 포함한 2차 표준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조례 개정을 다시 시도했지만 그 사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서 제주도의원 1인당 해외출장 횟수가 전국 평균(0.62회)의 2.3배에 달하는 평균 1.46회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상정된 개정안은 출장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10일 이상 도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 심사위원회에도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불

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후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그동안 보고로 끝났던 출장보고서를 심사위원회가 직접 들여다보게 된다. 출장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고, 심사위원회가 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을 심사해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동행 직원에게 여행업체 알선이나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전기 렌터카로 여행하며
2일 이상 체류 시 2만원”

제주관광공사는 15일부터 친환경 여행 확산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렌터카로 탄소중립 실천하는 제주 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 방문 관광객의 이동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조건을 충족하면 2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제주에 2박 이상 머물면서 전기차 렌터카도 2일 이상 이용하고, 제주 디지털 관광증인 ‘나우다’에 가입한 관광객이다.
참여 조건을 충족한 관광객이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을 방문하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2만원 상품권과 중문면세점 2만원 이용권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문미숙기자



오늘은 갯닦기 하는 날 15일 제주시 도두동 해안에서 도두동 어촌계 회원들이 갯닦기(해조류의 포자나 어패류의 치어가 붙을 수 있도록 바윗면을 깨끗이 닦아 주는 것)를 하고 있다.

제33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라환경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번 한라환경대상은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환경에 대한 UCC 공모전도 함께 진행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참가자격	
▶기업체, 단체, (공)기관, 학교, 교사, 학생,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한라환경대상		선정방법	
구분	포상내용(상금)	구분	포상내용(상금)
일반 및 대학	최우수상 300만원	▶신청 시 제출한 세부 공적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 (단, UCC 공모전의 경우 촬영된 영상물을 심사)	
	우수상 100만원	▶신청서 제출 시 추천서(소정양식) 1부	
	최우수상 70만원	▶한라일보 홈페이지(www.ihalla.com)에서 양식 다운로드	
학교	최우수상 100만원	▶세부 공적 개요 및 증빙 자료 첨부	
교사	최우수상 70만원	▶UCC 공모전의 경우 영상물을 저장하여 제출	
중고등부	최우수상 50만원		
초등부	최우수상 30만원		

한라환경 UCC 공모전	
구분	포상내용(상금)
일반 및 대학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60만원
고등부	최우수상 50만원
중등부	최우수상 40만원
초등부	최우수상 30만원

※ 기 수상자의 경우 수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경과한 경우 수상 자격 부여 함
※ 단, 참여자가 주로 제주도민인 경우 공적산출에 따라 상정할 수 있음

시상일 및 장소
▶2026년 8월 10일(월) / 한라일보사

접수마감 및 문의처
▶7월 3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jst1006@ihallaib.co.kr)로 접수
▶한라일보 비즈니스부 ☎064)750-2291, 2540 / 팩스: 064)750-2520
※ 자세한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 제33회 한라환경대상 배너에서 확인 가능

그날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일보

도, 해수욕장 등 안전요원 사전 배치

인원 455명... 역대 최대 규모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수욕장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장일보다 이른 6월 초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 안전요원은 지난해 333명보다 122명 늘어난 455명이 배치된다. 관련 예산도 40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30억2100만원보다 10억5900만원 확대됐다.
배치 인원은 해수욕장 12곳과 하천·계곡 7곳 등 물놀이 관리지역에 332명, 최근 이용객이 늘고 있는 항·포구와 비지정 물놀이 지역 32곳에 123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안전요원은 오는 24일인 해수욕장 개장전부터 현장에 조기 투입된다.

제주도는 행정시, 제주도교육청, 소방안전본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과 수상안전사고 예방 협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해수욕장 12곳에 하루 60명을 투입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연안안전지킴이 20명을 배치해 지난 5월부터 사고 위험 지역 순찰과 안전계도 활동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해경·행정시 합동으로 물놀이 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하고 노후·훼손된 안전펜스·인명구조함, 경고표지판 등을 보수·보강하고 있으며 학생 대상 수상안전교육과 안전수칙 홍보,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도 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올해는 안전요원을 대폭 늘리고, 해수욕장뿐 아니라 항·포구 등 안전관리 취약지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태영호 전 국회의원 4·3 유족 명예훼손 항소심... 5면 / 부동산 경기 침체에 주택가격 46개월 연속 하락... 6면

2026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개최를 축하합니다

디자인 리더 제주

064) 746-0775

DESIGN leader JEJU